

전주페이퍼, 한지박물관 무료 운영 30년

6월 13일까지 서미나 작가 초대전 '채움, 그리고 공감' 개최... 지역 문화공헌 지속

국내 대표 제지기업 전주페이퍼가 운영하는 전주한지박물관이 다양한 전시와 예술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페이퍼는 친환경 설비 투자와 함께 ESG 경영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주한지박물관을 30여 년간 무료로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주한지박물관은 전통 한지의 가치 보존과 확산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한지 전문 박물관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소통하는 열린 전시 공간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물관은 공모 중심의 제한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예술가들과의 유연한 협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실험적인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6월 13일까지 2층 기획전실에서 서미나 작가의 기획초대전 '채움, 그리고 공감'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종이를 기반으로 한 반입체 조형 작업을 통해 '채움'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꽃을 주요 모티프로 감정과 기억, 순수함의 감각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며 비



국내 대표 제지기업 전주페이퍼가 운영하는 전주한지박물관이 다양한 전시와 예술가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 문화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 있는 공간이 감정으로 채워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서미나 작가는 조소 전공을 바탕으로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한지의 물성과 시간성에 주목해 감정과 기억을 조형적으로 담아내는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데이지'를 반복적인 소재로 활용해 순수성과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과거와 현재의 감정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시는 '비어 있음에서 채움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공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개인의 감정이 공감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주한지박물관은 연간 5~6회의 기획전시를 통해 경력과 장르에 제한 없이 다양한 작가와 협업하며 신진 작가에게는 창작 기회를, 시민에게는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상생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피오리움 개관 1주년 혜택

남원시가 미디어아트 전시관이자 복합문화공간인 '피오리움(Fiorium)'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9일간 방문객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남원시 대표 축제인 '제96회 춘향제(4월 30일~5월 6일)'와 연계해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시킨 것이 특징으로, 춘향제 방문객이 매표소에 사진이나 영수증 등 인증 내역을 제시하면, 동반 1인에 한해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사 기간 방문객에게는 자원순환의 가치를 담은 '업사이클링 1주년 기념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SNS(@fiorium_official) 또는 전화(063-620-5567)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옷칠 목공예대전 수상작 선정

첫 대통령상 수상자 '남진우 작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단일 공예 분야 대통령상 훈격을 갖춘 제29회 대한민국 옷칠 목공예대전(이하 '대전')의 첫 번째 대통령상 수상자로 남진우 작가가 선정되었다.

남원시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옷칠, 목공예, 나전칠기,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7인과 일반 참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총 47점의 수상작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예의 대통령상을 차지한 남진우 작가의 '나전 흥배 국화문 의복함'은 조선시대 관복함의 형식을 응용한 목심지퍼칠기 기법의 작품으로, 광대용 심사위원장은 "뚜렷 변죽을 모질 기한 경사면으로 처리해 형태감을 살렸으며, 흑칠 바탕에 주철을 적절히 인배한 점이 돋보이는 격조 높은 수작"이라고 극찬했다.

이번 대전은 지난해에 비해 30대 이상 신진 작가의 참가율이 57%나 증가하며 옷칠 목공예 분야의 세대교체와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며, 특히 청년 작가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남진우 작가 '나전 흥배 국화문 의복함'

따라 전통적인 기법에 창의적이고 독특한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대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일 '남원 인숙선 명칭의 여정'에서 진행되고, 수상작 1차 전시회는 '제96회 춘향제' 기간 중 5월 1일부터 6일까지 시상식 장소에서, 2차는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내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3차는 12월 중 서울 공예트렌드페어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7부 '강패와 고아' (5)

내가 배순옥인데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노인은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다. "혹시..... 박명희 씨나 배순옥 씨를 알고 계시는지요? 예전에 무당을 했다고 하는데."

노인은 가만히 있어보자, 하며 눈을 허공으로 돌리고는 한참 이리저리 굴러다니 시선을 동식에게로 고정했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을 왜 찾으시요?"

"박명희 씨는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배순옥씨는....."

"맞아, 박명희라는 분은 맹인 무당이었고, 맹인 법사라고도 하고, 배순옥은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박명희가 맹인 무당이었으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여자가 있었지, 그 사람이 배순옥인가....."

노인은 고개를 갇웃거렸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요?"

"박명희가 죽고 나서 여기를 떠났지, 정읍 어디로 시집을 갔다고 하던가....."

"정읍 어디로?"

"가만히 있어보자....."

노인은 다시 고개를 쳐들고 눈을 하늘로 보던 뒤 생각을 더듬었다.

"맞다, 맞아."

노인은 가물거렸던 옛 기억이 모두 생각났는지 두 손바닥을 딱 마주치면서 눈을 빛내며 동식을 바라봤다.

노인의 말에 의하면, 이곳은 박명희의 외가 있었던 곳인데, 외조모가 입암택이라고 아주 영험한 무당이었고 보천교의 신도이기도 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마을에서도 칭송이 자자한 분이라고 했다.

이곳은 보천교 교주 차경석이 태어난 곳으로 아주 영험한 곳이고 차경석의 아들이 빨치산을 잡는 대장 차일혁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외조모가 입암택이라는 택호를 가졌다면 고향이 정읍 입암이 아닐까 추측하는데, 박명희를 도와줬던 여자가 입암택 쪽으로 먼 친척이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하면서 정읍 입암에 가면 그 여자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 배순옥 씨도 무당이었던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

동식은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말하고는 차를 곧장 정읍 입암으로 불었다. 노인의 말에 의하면 배순옥은 박명희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 아직은 배순옥이 동식의 친모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만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입암 면소재지로 들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생상형 시로 제작된 이미지

게 점집이나 무당집을 불렀다. 대흥리에 가면 보천교본부가 있는데 그 근방에 무당집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다시 대흥리로 차를 몰아갔고 보천교본부라는 곳을 찾았다.

용산리 연기마을 노인이 말하던 차경석이 세웠다는 보천교의 본부라는 곳이 이곳이구나 싶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조금전 소재지에서 만난 사람이 말한 대로 점집이 있었다.

점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쪽진 머리를 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마당을 쓸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혹시..... 배순옥 씨라고?"

"누구요? 내가 배순옥인데."

동식은 과거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있는 듯한 막연한 흥분 때문에 순간 험기증이 몰려왔고 가슴이 급격히 가속되어 뛰기 시작했다.

"여기 잠깐 앉아요 되겠습니까?"

동식은 대답도 듣지 않고 미루에 걸터앉았다. 배순옥은 잠시 경계의 눈으로 쳐다봤다. 동식의 옷매무새나 덩치가 심상치 않아 보인 모양이다.

"잠 보려 왔어요?"

배순옥은 빗자루를 기둥에 세워두고 동식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동식은 잠시 숨을 고른 뒤에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안은 작은 신당이 차려져 있고 점집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누구한테 들었소, 내 이름을?"

배순옥은 여전히 경계의 눈을 후퇴시키지 않은 채 동식을 쳐다봤다.

"혹시..... 강동식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강, 동, 식?"

배순옥은 이름을 말하면서 풀어지게 동식을 바라봤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